

Story 16

박 * * 전기공학과 2021년 졸

한국전력공사 송배전 분야 합격스토리

- ▶ **합격기업** 한국전력공사
- ▶ **직무** 송배전
- ▶ **스펙** 학점: 3.66
토익: 825점
- ▶ **현장실습** 현장실습 강의 수강(화상)
- ▶ **봉사활동** 헌혈 및 홀트학교(약50시간)
- ▶ **기타** 학생회(학생회장), 한전장학생
- ▶ **자격증** 전기기사
한국사 2급





대학생활 스토리

아마 이 글을 읽는 대다수는 한전 취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토리보다는 대학생활하며 제가 느낀 점 위주로 적어보겠습니다.

대학생활 중 가장 특별한 경험은 **학생회장**입니다. 원했던 직책도 아니며 리더쉽이 남들보다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학과 특성상 인원이 적고 보통 단일후보가 나오게 되는데 나오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추천을 받아 제가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제가 그 자리를 앉고 나니 이전 회장들보다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했던 성과 중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부리역량강화사업'입니다. 교내에 사업을 신청하여 통과하면 200만원 지원금으로 학과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저는 '한전직무알기'라는 이름으로 한전견학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계획한 바 있습니다. 학교생활하면서 가장 열정적인 경험이 있다는 것이 면접에서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자소서에 적었더니 면접관들도 충분히 관심을 보이셨고 저 또한 거짓 없이 제가 했던 경험을 나열했더니 웃어주셨습니다. 꼭 학생회장이라서가 아닌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장 열정을 보였던 경험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평소 행실이 이른바 어른들(면접관), 경험이 20대보다 훨씬 많은 분들에게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은 연기를 하더라도 면접 10분안에 들통 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가 알고 있는 최종면접자 중에는 정말 인성이 괜찮다고 느낀 사람만 붙은 것 같습니다. 평상시 본인의 행실이 항상 옳고 바르다고 생각한다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스펙은 한국사2급, 전기기사, 토익825입니다. 아마 취업준비 기간의 여러분들보다 높지 않은 스펙일 겁니다. 서류 70배수에서 커트라인에 걸려 겨우 합격하며, 4학년 재학 중이기에 이른바 취준만 오래한 고인 물과 싸움에서 이기는 게 쉽진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스펙보다 내면에 더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스펙은 오로지 서류통과를 위한 요건이며 내면의 멘탈을 많이 강화하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오그라들지 모르겠지만 멘탈 관리도 실력이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취업준비를 하며 어느 힘든 순간에도 버틸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무기 중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대외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각각의 활동을 통해서 느낀 점, 배운 점이 무엇인지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원하는 기업과 관련 있는 활동이라면 더 좋겠지만 예를 들어, 한전홍보대사를 했다고 해서 면접관이 점수를 더 후하게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전에 대한 관심도를 표하기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경험에서 배운 점이 별 볼일 없다면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를 가질 것입니다.

전공공부를 충실히 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본적으로 전기기사 필기에서 공부했던 기출문제들은 원리를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기간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도 당연하니 시험날짜와 여유를 두어 많게는 7개월, 평균 5개월 정도는 원리나 이론을 숙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하반기 기준 21명을 광주전남 신입사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합격 한 뒤 찾아본 결과로 약5-6명이 전남대, 2

명가량이 조선대였습니다. 전남대생이 공부를 더 잘하니까 합격할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편협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제 동기 21명 중 약 절반 정도는 아직 자 인 것 같습니다. 경쟁자는 오직 학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며 오만하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면 결과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의 4가지 인재상(통섭형 인재, 기업가형 인재, 가치창조형 인재, 도전적 인재) 중 본인과 가장 부합된다고 생각하는 인재상을 두 가지 선택하여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본인의 교육, 경험, 경력사항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하여 주십시오. (700)

도전적 인재

저의 가치관은 '그릇을 넓히자'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전했던 것은, 학업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어 선정 시 200만원의 지원금으로 진행과정을 꾸려나가는 '역량 강화사업'이었습니다. 학과 학생들의 견해를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전 견학'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지원차량은 1대였고, 같은 시간대에 출발할 수 있으며 가격이 저렴한 회사를 찾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학생처, 운수회사 등 많은 연락 끝에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전보고서 내용 작성에 있어 어떤 교육이 가장 필요인지 고려하며 교수님과 논의하였습니다. 이처럼 저의 주관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이 있었지만 대화를 통해 차근차근 여러 절차를 해결했습니다.

기업가형 인재

학생회장으로서 일정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려 했습니다. 문제점은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회 회의를 거쳐 학생회비를 제출하지 않은 원인을 찾았습니다. 학생회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저는 해결책으로 1년간의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표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투명성을 위해 사용 금액은 학과 사무실을 통해 언제든지 회계장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배치한 노력의 결과로 47명 중 46명이 제출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 희망 직무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입사 후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지를 본인의 교육, 경험, 경력사항 등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700)

고등학교 때 학부모님께서 자신의 직장에 대해 설명해주시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전력공사'를 신청했고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들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모든 말씀에서 회사에 대한 자긍심과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느

낄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저는 전기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학과 프로그램을 통해 광주전남본부로 견학 한 경험이 있습니다. 센터의 주 업무 중 하나인 배전운영부서에서 고장 시간의 관리와 배전까지의 임무, 평시에는 예방대책, 배전선로 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배전 운영팀장님께서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주말과 명절, 재난 시에도 교대출근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며 항상 준비된 자세를 강조하셨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자신에게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배전의 측면에서 여러 큰 손실을 막기 위한 본인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자긍심이라는 요소가 저를 끌리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희망 직무를 배전운영, 특히 고장분석 및 예방대책 수립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직무에 있어 미숙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전력공학에 대해 깊이 공부했고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585)

최근 한국전력공사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사업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 한 가지를 언급하고 그것에 대한 본인의 견해(문제의 원인, 개선방안 등 포함)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600)

한국전력공사 공식 매체를 통해 '북당진~고덕간 HVDC 변환설비 건설사업'을 보았습니다. 충남지역 발전력을 수도권에 증대시켜 공급신뢰도를 향상하는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북당진 변환소에서 보낸 직류전기를 고덕변환소에서 교류로 변환하여 수도권 남부 쪽과 평택 반도체 생산 공장에 공급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육상 HVDC 사업에선 큰 무효전력용량의 스테콤을 구축했고 최근까지 부하 기능시험과 시운전을 성공한 결과 안전성 또한 크게 상승 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위치를 고려했을 때, 태양광/배터리와 연계될 때 등 HVDC는 더욱 필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최근 해상풍력발전과 연계되는 등 시장 확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HVDC가 세계우위를 잡기 위해 국내시장을 더 넓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와 같은 국가간 계통연계에서 높은 고지를 선점하려면 국내의 기술 사례가 앞서있어야 합니다. 예시로 남북한교류를 통해 우리나라의 4.4%의 발전량에 그치는 북한에 전력을 공급한다면 우리나라의 HVDC 기술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사지원경험 (한국전력공사 송배전)

가. 인·적성 검사 후기

〈적성〉 NCS편

전기 직을 기준으로 NCS는 전공15문제+ NCS 40문제 정도 출제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끝까지 푼 경우가 드물기에 정확하진 않아요.) 먼저 전공은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했던 정도라면 중간 이상의 실력을 보유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좋은 점수를 얻으며 실패할 확률을 줄이고자 한다면 더 많고 깊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도 그러했고 기사필기 때 준비했던 기출문제를 거의 달달 답을 읊을 수 있을 정도로 공부했습니다.(암기가 절대 아

닌 내용을 모두 이해하는 게 포인트!) 특히나 설비기준은 완벽히 암기능력을 필요로 하기에 설비과목에 대한 공부는 본인의 스타일대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오랜 기간 자주 보는 스타일의 학생도 있지만 저는 짧고 굵은 스타일이라 1주일 간 설비과목만 보았습니다). 경험상 기사필기를 80점 이상으로 통과한 학생정도의 깊이라면 전공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시험 1-2주 전부터는 시판에 나온 전기전공기출을 풀었습니다. 단, 기출이 기본이니 기출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하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시험은 매번 유형이 바뀌고 자주 나오는 과목의 트렌드가 바뀌어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전력공학 위주로 출제하는 편이며 2020 하반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외로 설비기준이 1문제밖에 안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NCS의 경우 저는 오래공부한 편은 아닙니다. 4학년 2학기 중 취업을 했으니 NCS공부는 길어야 1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스터디에서 매3비, 수문끝, 비타민 교재로 기반을 다질 것이라 생각하고 절반 이상을 풀었으나 작성자 생각엔 크게 도움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수문 끝에서 각 기업의 기출문제 또는 PSAT문제가 유형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반기 필기시험 볼 당시 출제가 휴노로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풀이 유형에 대해 공부하는 게 크게 도움됐던 것 같습니다. NCS는 머리가 좋아야 잘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느 정도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머리가 좋다는 의미가 똑똑하다고 일컫는 머리보다는 **짧은 시간에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집중력에 유의하며 공부한다면 충분히 통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휴노는 시험 난이도가 쉬운편입니다. 모두가 쉽다고 느끼며 풀기 때문에 남들보다 2-3문제 더 풀 정도의 속도를 가지도록 준비하면 좋을 것입니다.

〈적성〉 휴노형 적성검사

휴노는 기존 행과연 방식인 예/아니오 가 아닌 매우그렇다~매우아니다 의 5지선다였습니다. 저도 처음 접했으나 어렵지 않게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인이 살아왔던 경험에 근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며 저도 있는 그대로 기록했습니다.(단, '폭력을 즐긴다'와 같이 도덕성에 어긋나는 것은 당연히 '아니오'를 체크해야겠죠!)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으나 한전은 인성/적성 어느 부분에서 불합격인지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인성에서 떨어진 경험이 있다고 생각했던 스터디원은 인성검사에서 자신의 실제성격이 소심함에도 대범하고 모범적인 방향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전략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의 성격을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결과적으로 불합) 또한 인성은 면접전형에서도 자소서와 함께 참고하는 자료이니 이 점도 의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면접후기

TIP

팁을 먼저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면접은 '지원자가 얼마나 공부를 했나'의 지표도 있지만 **'얼마나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은가'**의 지표를 갖기도 합니다. 방금 윗 줄을 읽는 취준생들은 "아,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 할테지만 막상 면접 준비를 하게 되면 미리 준비한 대답만 기계적으로 하는 본인, 또는 스터디원의 모습을 분명 보게 될 겁니다. 얼마나 지원한 기업에 입사하고 싶은지 본인의 열정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느낄 수 있지만 면접이란 원하는 대답만 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시험은 아닙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닥칠 수 있는 황당한 질문들은 평소 얼마나 본인이 깊은 생각을 해왔는지 유도하는 심문입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어렵게 표현되었나 하여, 다시 말하자면 면접을 준비할 때 '내가 면접관이라면 어떤 질문을 할까?, 지원자가 어떤 대답을 하면 좋을까?'를 고민해보는다면 상황을 대처하는 능력이 향상 될 겁니다!

〈1차면접〉 전공+인성

저는 2020 상반기에도 1차 면접에서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른바 '족보' 와 같이 한국전력 면접 기출이라 하는 개념들을 많이 질문 받았는데요. 관련 공부를 해보신분이라면 아실만한 간단한 코로나, 접지, 유도기 등 전력 공학과 전기기기 위주의 질문을 받았습니다.(당연히 그 외 과목도 출제됩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개념에 대해 공부를 많이 했으나, 실패의 확률을 줄이기 위해 사업내용 즉, 한전의 관심도를 보여줄 수 있는 공부도 충분히 하였습니다. 실제 2020하반기 1차 면접은 개념의 내용보다도 한전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사용하고 있는 기술 등의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충분히 준비해두어 대답을 대부분 하였는데 상반기와 같이 준비한다면 떨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면접관은 매 기수마다 바뀌고 면접관의 성향에 따라 트렌드도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실패를 줄이는 방향으로 공부한다면 합격하는데 걸림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성질문은 자소서 기반 1개 받았고 대부분 전공 지식이었습니다.

〈2차 면접〉 전공 + 인성

1차 면접이 전공면접이라 부른다면 2차 면접(최종면접)은 인성면접이라 부릅니다. 선배들은 이 2차 면접에서 전공을 많이 물어본 기수가 있다고 하는데, 저의 기준으로 100% 인성질문을 받았습니다. 특히 자소서+경력사항을 위주로 질문이 들어오는데, 저의 경우 학생회장을 하여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준비하면서 스스로 여러 개의 질문을 만들었고 생소한 질문이라도 대처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ex 학생회장하면서 가장 보람찬 일? 가장 힘들었던 일? 등) 포인트 중 하나는 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원진 면접인 만큼 좋은 인상을 주는 게 +요소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평소 예의바른 편이었고 면접실에 들어간 이후부터도 인사를 똑바르게 하며 대화를 할 때 웃으며 눈을 쳐다보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스테디를 하면서 이 부분도 연습을 꼭 해보길 권장합니다. 질문은 대부분 경험에 근거하니 본인의 경험을 노트에 30가지 이상 나열해보고 물 흐르듯 대답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인성면접도 문제없이 통과하실 겁니다!